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온기나눔

보도시점 (온라인)2024. 1. 21.(화)12:00
(지 면)2024. 1. 22.(수) 조간

고속도로 휴게소 등 귀성길 공중화장실,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

- 2월 4일(화)까지, 고속도로 휴게소, 여객터미널,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집중점검
- 편의 증진을 위해 가변형화장실 운영 및 임시화장실 확충 등 조치

□ ㄷ씨는 명절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평소보다 긴 대기시간 때문에 귀성길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. 그러나 올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요에 따라 남성화장실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하는 가변형화장실이 운영되고, 임시화장실도 설치된다는 기사를 보고 보다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1월 22일(수)부터 2월 4일(화)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·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.

□ 먼저, 안전·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교통시설, 관광지,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.

○ 시·군·구와 주요 공공기관*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, 계획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.

*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공항공사, 서울교통공사 등

□ 주요 점검내용은 ▲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, ▲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·청결 강화, ▲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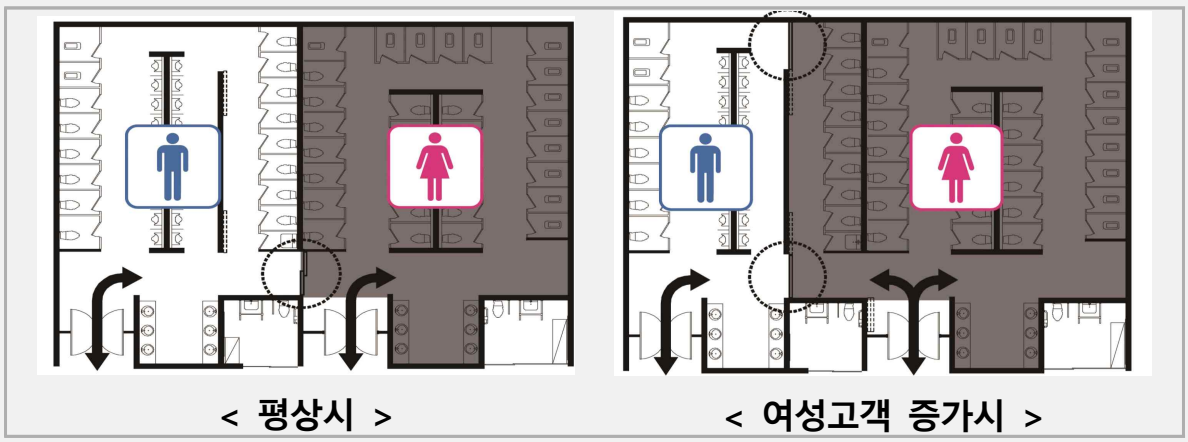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·CCTV·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.

□ 또한,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휴게소 내 임시화장실 설치 및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개(남성 228, 여성 378)를 확충한다.

* 기존 13,044개(남성 5,734개, 여성 7,310개) → 확충 13,650개(남성 5,962개, 여성 7,688개)

○ 평택휴게소 등 69개소에서는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성용 가변형 화장실* 423칸을 추가로 운영해 여성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.

*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적으로 전환하여 탄력적 운영



가변형화장실 : 여성고객 증가시 화장실 내부 가변형 출입문을 활용하여 남자화장실 일부를 여자화장실로 전환

○ 더불어,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내림 버튼, 세면대, 기저귀교환대,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의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.

- 바닥, 변기,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하여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.

□ 김민재 차관보는 “설 명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국민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, 임시화장실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다”며, “이용자가 늘어도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	책임자	과 장	박광섭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신윤성 (044-205-354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